



## 2017 현대건설 신입사원 수련대회

Harmonious  
Dynamic  
Energetic  
Creative



현대건설 루키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 '2017 신입사원 수련대회'가 6월 21일부터 사흘간 제주도 일대에서 열렸다. 제주 어드벤처, 제주술 야외캠핑, 자전거 하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이번 수련대회는 끈끈한 동료애와 애사심을 확인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 ▶ 관련기사 6, 7면

This year's new hire training program was held in Jeju Island for three days from June 21 as a harmonized festival for all newcomers of Hyundai E&C. Featuring a variety of programs including Jeju Adventure, outdoor camping and seaside hiking, the event was all the more meaningful in that the participants could confirm their companionship and royalty to the company. ▶ Continued on page 6,7

## 현대건설, 싱가포르 국토 확장의 선두를 지키다

2700억원 규모의 투아스 지역 서부 매립공사·창이 지역 동부 매립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싱가포르에서 두 건의 해상 매립공사를 연이어 따내며 2700억원 규모의 수주액을 올렸다.

현대건설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1억 6200만 달러(약 1840억원) 규모의 '투아스 지역 서부 매립공사'와 7400만 달러(약 840억원) 규모의 '창이 지역 동부 매립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투아스 핑거 원 매립공사 전경.

'투아스 지역 서부 매립공사'는 싱가포르 주룽타운공사(JTC: Jurong Town Corporation)가 발주한 해상 매립 프로젝트로, 현대건설은 투아스의 서측 해안을 메우고 안벽을 조성하는 공사를 맡았다. 오는 7월 중 착공 예정으로 57개월간 진행된다.

현대건설이 앞서 수주한 '창이 지역 동부 매립공사'는 창이공항 확장과 도로 이설을 위해 창이공항 남동쪽 부지를 매립하는 사업이다. 발주처는 공공주택청(HDB: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으로, 공기는 24개월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싱가포르의 국가 주요 인프라 사업을 관장하는 두 발주처(JTC·HDB)가 현대건설의 뛰어난 수행 능력과 기술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꾸준히 발주되는 인프라·건축 공사 등의 수주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1981년 풀라우 테콩 매립 공사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한 이래 국토의 6%에 해당하는 부지를 성공적으로 매립했다. 지금까지 공사 규모는 총 55건, 98억 달러에 달한다.

한편 현대건설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인프라 및 건축 공사 총 10개 현장, 36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 Hyundai E&C wins 270 billion won landfill orders in Singapore

Hyundai E&C announced it has received two reclamation projects worth a combined 270 billion won from Singapore.

Korea's primary builder has recently won orders for a 162 million dollar landfill in the west of Tuas area and a 74 million dollar landfill in the east of Changi region.

In the landfill project to be conducted in the western part of Tuas placed by Jurong Town Corporation (JTC), the builder is in charge of working on the reclamation process in the western sea of Tuas and building a dock. The project is scheduled to begin in July and will take 57 months.

In the other project placed by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HDB), the

company will fill in a portion of the sea southeast of the Changi Airport in a bid to expand the airport and relocate related roads for 24 months.

Hyundai E&C entered Singapore in 1981 to carry out the Pulau Tekong reclamation project. Since that, the builder has successfully performed landfill projects accounting for six percent of the land. So far, Hyundai E&C has completed 55 projects valued at 9.8 billion dollars.

In Singapore, Hyundai E&C is currently working at ten construction sites worth 3.6 billion dollars including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work.

# 4625억원 규모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상반기에만 총 5건, 1조953억원 수주실적 달성

우리 회사가 서울 강북권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지난 18일에 열린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사는 경쟁사를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조1구역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 약 11만2000㎡를 지하 4층~지상 24층, 26개 동, 2389가구로 탈바꿈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공사비만 4625억원에 달한다.

우리 회사는 이 단지에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선보이던 커튼월 외관을 비롯해 조경특화, 4페이 설계(일부), 전 가구 남측향 배치, 스카이라운지, 테라스 하우스 등 최고급 사양을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 회사는 ‘힐스테이트 녹번’과 ‘백련산 힐스테이트 1~4차’, ‘북한산 힐스테이트 1·3·7차’ 등 은평구에서만 9600여 가구를 공급했으며, 이번 대조1구역 사업까지 수주해 대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을 조성하게 됐다.

한편 우리 회사는 올해 ▶경기도 고양시 능곡6구역 도시환경정비(1월, 836억원) ▶부산시 사직 1~6지구 재건축(1월, 2330억원) ▶인천시 십정5구역 재개발(2월, 1110억원) ▶서정연립 재건축(5월, 2052억원)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까지 포함해 상반기에만 총 5건, 1조 953억원의 수주액을 올렸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이번 대조1구역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재개발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입지도 뛰어난 만큼 은평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의 높은 신

뢰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도시정비 사업 수주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Hyundai E&C receives Daejo Zone 1 project

Our company has obtained one of the biggest redevelopment projects in Seoul's district north of the Han River.

Our company was selected as a constructor at a regular general meeting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for Daejo Zone 1 located in Eunpyeong-

gu, Seoul. The Daejo Zone 1 is a mega size redevelopment project designed to 26 apartment buildings with 24 floor above ground and 4 basement levels including 2,389 apartment units on the land of about 112,000 square meters. Its construction costs reach 462.5 billion won.

For this project, our company is planning to offer top-notch features including curtain wall exterior, specialized landscaping work, four-bay design (partly adopted) southern exposure for all units, a sky lounge and terraces.

Earlier, our company already pro-

vided about 9,600 apartment units in Eunpyeong-gu alone including Hillstate Nokbeon, Paekryeonsan Hillstate 1 to 4, and Bukhansan Hillstate 1, 3 and 7. The completion of the Daejo Zone 1 project is expected to enable our company to establish a so-called Hillstate brand town in this area.

## 현대건설 후원 ‘미안마 초등학교 건립 완공’

지난 23일 미안마의 남동쪽에 위치한 탄린타운십(Thanlyin Township) 내 상아트 마을에서 우리 회사의 싱가포르 지사 직원들과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 학교 교장 및 교직원,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교 건립 완공식을 했다. 미안마 수도 양곤에서 한 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마을은 약 1만여 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빈민촌이다. 이 지역 학생들은 초등학교 부재로 가설 건물 등 임시 공간에서 단편적 교육을 받아왔다. 이에 우리

회사는 1억원을 후원하고 굿네이버스(국제구호개발 NGO)와 협력, 3개 층(교실 6개, 도서관 1개, 회의실 1개) 규모의 초등학교를 지난해 7월 착공해 1년 만에 완공했다. 2011년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의 교육센터 건립사업으로 해외 사회공헌 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우리 회사는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의 8개국에서 18건,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신시장 7개국에서 9건을 진행해 총 15개국에서 27건의 해외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 ‘힐링 콘서트’ 외부 명사 특강 진행

우리 회사가 지난 20일 계동 본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4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힐링 콘서트-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행복의 기원: 과학의 눈으로 본 행복’이라는 주제로 행복 연구가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서 교수는 강연에서 “행복은 원대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상 속에 늘 있다”며 “행복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원힐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힐링 콘서트는 전 임직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우리 회사는 2015년 9월부터 임직원이 가정과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전문상담사로부터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직원힐링프로그램(EHP: Employee Healing Program)’을 운영 중이다.

문의 홈페이지(http://ehp.hdec.kr) 또는 전화(1566-5228)

## ‘공정거래 교육’ 실시

우리 회사가 15일 계동 본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사내 공정거래 전문가인 김민환 자문이 강사로 나서 공정거

래법 관련 ▶새 정부의 공정위 정책 방향 및 영향 ▶부당내부거래 실태조사와 주요 이슈 ▶하도급 주요 위반행위 및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정거래 교육은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제재강화 방침에 따른 경영 리스크에 대비하고 임직원의 공정거래 준수 의식 제고를 통한 범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획실 공정거래 담당자는 “최근 기업활동에서 준법경영과 기업 윤리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부당내부거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내 자율준수프로그램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공정거래 문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제1기 해외 기술봉사단 ‘H-ConTech’ 모집

우리 회사가 해외 기술봉사단 ‘H-ConTech’를 발족하고 제1기 직원과 대학생 봉사자를 모집한다.

‘H-ConTech’는 현대차그룹의 H와 건설의 Construction, 기술의 Technology가 결합한 합성어로, 연구개발 본부와 협업해 해외현장 지역에 기술교류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차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제1기 봉사단에서 활동할 우리 회사 직원 10명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대학생 35명은 8월 14일부터 11박12일간 인도네시아 사를라 지역발전소 현장 주변 지역에 공익시설을 짓고, 자카르타 내 현지 대학·정부기관·발주처를 초청해 기술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직원은 그룹웨어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총무실 CSR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 그룹사 소식

#### HMC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

HMC투자증권이 7월 1일부터 ‘현대차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현대차’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현대차투자증권의 새로운 CI는 상승화살표(∧)와 플러스(+) 기호를 모티프로 시각화해 고객 자산가치의 증대와 신뢰 상승을 표현함과 동시에 안정적이면서도 미래를 향해 새롭게 뻗어 나가는 의지를 표현했다. 메인 색상은 현대차그룹과의 일체감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블루 컬러를 사용했으며, 고급스러움과 안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골드 컬러도 활용했다.

한편 현대차투자증권은 26일부터 2주간 총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그룹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및 HMC투자증권 공식 페이스북에서 사명 변경 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 현장·부서 소식

#### 건축사업본부·글로벌마케팅본부, 단합대회 가져

건축사업본부와 글로벌마케팅본부가 상반기기를 마무리하며 각각 단합대회를 했다.

건축사업본부는 13일 임직원 348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직원들은 안산 자락길에서 두 시간여 동안 산책을 하고 인근 찜질방으로 자리를 옮겨 숯가마 체험과 제기차기 시합 등을 진행하며 친목을 다졌다. 건축사업본부 관계자는 “업무를 잠시 잊고 힐링할 수 있는 찜질방에서 단합행사를 하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도 끈끈해지는 일거양득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마케팅본부도 26일 국내 지사를 포함한 본사 임직원 172명이 참석해 단합대회를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남한산성 둘레길에서 산행을 한 후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화합을 다졌다. 글로벌마케팅본부 관계자는 “알찬 화합의 시간을 가진 만큼 남은 하반기에도 전력투구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 카타르 지사·현장 직원, 라마단 스포츠 경기 참가

카타르 지사와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하마드 메디컬시티 현장 직원 23명이 우리 회사의 주요 발주처인 카타르



공공사업청(Ashghal)이 주관한 라마단 스포츠 경기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우리 회사 직원들을 포함해 발주처 직원, 현지 건설사 등 총 11개 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와 농구 경기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카타르 현지에서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경기에 참가한 우리 회사 직원은 “이번 스포츠 경기 참가로 발주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카타르 내의 영업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Looking for summer fun? Just add water

June 24

Summer is officially here. Festivals dedicated to cooling off during the hottest months of the year offer an easy-to-access retreat for Seoul citizens. From water fights to outdoor pools, here are four upcoming events where you can cool off this summer.

## Sinchon Water Gun Fight Festival July 29-30

Since 2013, Sinchon in western Seoul has been the home of water gun fights for adults. This year, the theme of the festival is "Man Against Extraterrestrials." Each participant will have the chance to choose whether they will be the invading alien force or protectors of Earth. The main stage, located right in the middle of Yonsei-ro, will be shaped like a circular UFO. Additionally, there will also be a bubble foam party with special effects. The festival had been scheduled for July 8-9 but has been postponed to July 29-30 in consideration of the farm villages damaged by the current drought. For additional information,



go to [watergunfestival.co.kr](http://watergunfestival.co.kr), or call 02-1661-3913.

## Hangang Summer Festival July 21 - August 20

The Hangang Summer Festival, hos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turns this year, this time under the theme "Rediscovering the Han River." The 31-day festival with a whopping 80 programs will provide plenty of chances to escape the summer

heat. The program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taying Cool" consists of water-related activities. "Together" consists of activiti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the ecosystem. The final category is "Touching Moments," and will offer a host of concerts and performances to enjoy. Some of the biggest attractions of the festival are the Film Festival under the Bridge, the Tropical Night Festival, the Han River Paper Ship Racing Tournament,

Some activities will require a participation fee. For additional information, visit [hangang.seoul.go.kr/project](http://hangang.seoul.go.kr/project).

## Rain Festival July 27-29

The Rain Festival, hos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nonetheless an enjoyable festival. Held around Seoul Plaza and Deoksu Palace, the whole idea of the festival is to instill in visitors the importance of conserving water and the need to recycle rainwater into usable water. The festival grounds offer many activities to educate people on the importance of water in an enjoyable way. It offers an outdoor pool filled with filtered rain water; a gigantic installation art work of a rain cloud and also an outdoor movie theatre where festivalgoers can watch movies while sitting in small, personal pools, called Rain Movie Night. The Rain Playground will feature a bounce house, while the Rain Market will have small shops offering handmade items relating to the theme of rain. Visit [festival.seoul.go.kr/water](http://festival.seoul.go.kr/water) for more information.

By KOREA JOONGANG DAILY

## Group News

### Kona World Premiere of an Urban SUV for Active Lifestyles



Hyundai Motor has unveiled the latest vehicle in its expanding line-up of stylish SUVs, the Kona compact SUV. With a strong, impactful design and uncompromised individuality, the Kona is designed to appeal to modern customers with active lifestyles.

The Kona joins Tucson, Santa Fe and Santa Fe Sport in a growing line-up of Hyundai Motor SUVs, as the company continues to widen customer choice in the segment. At the world premiere of its new B-segment SUV, Hyundai Motor reaffirmed its promise to deliver SUVs that feature progressive design with high interior refinement and spaciousness.

The Kona will go on sale in Korea later this month, followed by North America and Europe. "With the Kona, we have created a stylish and highly functional compact SUV, perfectly suited to the needs of customers who pursue challenging, action-filled lifestyles," said Euisun Chung, Vice Chairman of Hyundai Motor Company. "We aim to set new standards for the compact SUV segment, with appealing design, cutting-edge connectivity and class leading safety features."



By AP posted by KOREA JOONGANG DAILY

## World's Ugliest Dog unimpressed with title

June 26

Martha is big, ugly, lazy and gassy. And a world champion. In a competition annually dominated by the old, the tiny, and the hairless, the 3-year-old, 125-pound Neapolitan Mastiff used her lollygagging youth



to win the 29th annual World's Ugliest Dog Contest.

She was a favorite of the Northern California crowd from the start, often plopping down on her side on stage with her droopy face spread across the ground when she was supposed

to be showing off. The judges didn't even need to hear her signature snore to give her the award.

"Do you know you just won the World's Ugliest Dog Contest?" asked Kerry Sanders of NBC News, one of three judges who gave Martha the crown. Her handler Shirley Zindler answered for her: "I'd gloat, but I need a nap."

Martha lumbered away with \$1,500,

a flashy trophy and a trip to New York for media appearances, all things she could hardly care less about.

The dog, from nearby Sebastopol, was rescued when she was nearly blind from neglect by the Dogwood Animal Rescue Project in Sonoma County, where the contest was held. After several surgeries, she can now see again, Zindler said.

By AP posted by KOREA JOONGANG DAILY

## Hyundai E&C Today's Online Event: Tune in 2 U

### What is a treasure in your life?

Hyundai E&C Today has been holding the "Tune in 2 U" event designed for our global employees of all nationalities to get an understanding of what they think and give them a chance to feel closer to each other. The topic of the 336th edition is "What do you cherish the most?" It could be your dogs or cats, love letters, and old toys.

We received many e-mails all over the world between June 15-23. We would like to thank all employees for sharing their warm-hearted and interesting stories. Looking forward to hearing more opinion from you next time, we are going to introduce best five comments.



**JUN JUN ARROYO CAHVEZ**  
(Qatar National Museum, Qatar)

My treasure is **my family**, especially my two kids Yumi and Marcel. They are growing up so fast and are consistent honor students in school. They bring a jolt of energy to me especially when they make me feel proud as a parent with their excellent school works. But I always remind them that learning and doing their best without sacrificing their integrity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WILL STUART PONCE**  
(Qatar National Museum, Qatar)

I consider my greatest treasure is **health**. Once, I was sitting and suddenly I felt so much pain in my back that I couldn't get up. Luckily, some people were outside when I called for help, and they brought me a medicine to ease the pain. But it took hours until I was able to stand again. We have to take care of our HEALTH. All the things in the world would be useless if you are not healthy.



**BYKOVA YELENA**  
(Accounting Management Group, Seoul)

My treasure is **vacation!** If you ask me the reason why, isn't it obvious? I can see my family and friends who live far from me. I'm expecting the long Korean holiday in September and October.



**FERDINAND CATAYONG PUNZALAN**  
(Lusail Expressway Package-1, Qatar)

My most prized possession is **my grandpa's gold ring**. The ring was passed on to me from my dad in Oct. 1995 as the 3rd generation owner - from my grandpa (1917) to my father (1948). This year will mark a century of valuable memories and emotional attachment from both men I look up to. I hope I can pass not just the ring but a similar praise of my father's legacy to my two lovely daughters.



**DANNY ESPINOSA**  
(Singapore Office, Singapore)

The greatest treasure in my life is **my guitar**. Playing it always makes me happy and also relaxes me. It's a good energy for my brain. Without my guitar, my life would be boring.



창립 70주년을 맞아 현대건설의 역사를 바로 알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에서 글로벌 톱 건설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눈부신 발자취를 <사보신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남해고속도로 전경.

## ⑧ 1970년대 국내 프로젝트(III) 지상과 지하에 길을 내다

**‘고속도로 양적 성장기’ 중심에서다**  
경부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고속도로망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1970년대 들어 고속도로의 양적 성장기를 맞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현대건설이 있었다. 현대건설은 71년 영동고속도로(신갈~새말)를 시작으로 73년 호남·남해고속도로(대전~순천~부산), 75년 영동고속도로 연장(새말~강릉)·동해고속도로(동해~강릉), 77년 구마고속도로(대구~마산) 등 고속도로를 잇따라 건설했다.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영동고속도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기점 28.5km의 신갈과 강릉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처음에는 2차선으로 시공했지만, 향후 4차선까지 확장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공사였다. 현장은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지형의 굴곡이 심하고 산악 지대가 비교적 넓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71년 1차 공사(신갈~새말), 74년 2차 공사(새말~강릉)로 진행됐는데, 새말에서 강릉에 이르는 구간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보조기중 밑에 동상방지층(모래에 깐 돌과 잔자갈을 섞음)을 사용했다. 이 공사에는 하루 평균 약 600여 명의 기능공 인부가 참여했다.

호남·남해고속도로는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를 거쳐 남해안을 따라 부산에 이르는 총연장 437.6km 규모의 프로젝트다. 정부가 호남과 남해고속도로를 함께 건설하기로 한 것은 호남과 영남을 ‘1일 생활권’으로 묶으면서 이리 수출자유지역과 군산 외항 개발, 여수·광양 지역의 중화하기지화, 옥포·삼천포에 대

단위 조전소 건설 등 일련의 대규모 공업권역을 잇는 동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이 공사에서 포장공법과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습득하며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 갔다.

###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다

휴전 직후 한강대교 복구공사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교량 건설에 나선 현대건설은 70년대 한강에 마포대교·잠실대교 등을 준공했다. 68년 착공해 70년 8월에 완공한 마포대교는 서울 최초의 신도시라 할 수 있는 여의도 개발계획에 따라 건설됐다. 마포대교는 기술적인 면에서 이전 대교들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콘크리트 반중력식 교대 2기와 철근 콘크리트 교각 38개로 하부를 구성하고 상부에는 플레이트거더와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한 것. 총연장 1670m로 건설 당시 한강은 물론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였으며, 현대건설은 불과 2년여의 짧은 공기로 마포대교를 완공했다.

한편 70년 8월 15일 준공한 남산

1호 터널 공사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현대건설은 78년 2월에 남산 3호 터널을 완공하면서 터널 시공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남산 3호 터널은 교통량이 폭증하는 충무로·명동 등 서울의 중심가와 강남을 연결하는 쌍굴 터널이다. 서울시는 총 2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발주했는데 현대건설은 1공구를, 남광토건은 2공구를 맡았다. 1공구는 회현동 쪽에서 터널 중간까지로 두 회사가 각각 절반씩 시공을 맡은 셈이다. 이 쌍굴 터널의 규모는 각각 길이 1270m, 높이 9.2m, 폭 8m다. 총공사비는 약 97억원이며, 현대건설 도급액은 22억1000만원이었다.

### 지하에 ‘또 다른 길’을 놓다

현대건설은 고속도로를 위시한 각종 도로 외에 지하철과 철도 등의 건설에도 뛰어난 공사 수행 능력을 발휘했다. 71년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5.7%였던 데 반해 교통인구 증가율은 배에 가까운 10.7%로 그 수가 이미 627만 명을 돌파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인구

증가에 따라 대량수송 수단으로 지하철 건설 계획을 세웠다.

지하철 1호선의 전체 12공구 중 현대건설이 맡은 구간은 7공구(종로3~5가). 7공구에는 896.2m에 달하는 보선 공사와 종로5가 지하철역 1개소, 변전소 1개소와 기타 전기공사, 환기구, 오수정화소, 체신공동구 1000m 등이 포함돼 있었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종로5가역은 다른 역에 비해 규모가 크고 구조도 복잡해 까다로운 작업이 많았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근로자 수는 하루 평균 70~80명 정도였으며, 현대건설 직원도 5~7명이 상주했다.

현대건설은 지하철 1호선 공사(74년 8월 15일 완공)에 이어 수도권의 지하철 2~9호선과 공항철도·경의선 전철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6대 도시 지하철 공사에도 참여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쌓은 현대건설의 지하철 건설 기술과 경험은 훗날 싱가포르 MRT, 홍콩 지하철 등 관련 분야의 활발한 해외 진출 성과로 이어졌다.

##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1970s (III)

Korea accelerated its effort to develop a highway network in the 1970s by building the Gyeongbu Expressway between Seoul and Busan and the Gyeongin Expressway between Seoul and Incheon, which led the construction of domestic highways to grow in volume. Hyundai E&C was at the center of the development initiative. Starting with the Yeongdong Expressway (Singal-Saemal) in 1971, Hyundai E&C worked on the Honam-Namhae Expressway (Daejeon-Suncheon-Busan) in 1973, the Yeongdong Expressway (Saemal-Gangneung) and the Donghae Expressway in 1975, and the Guma Expressway (Daegu-Masan) in 1977.

The country's most representative highway construction around that time was the Yeongdong Expressway. The project consisted of two phases: the first in 1971 and the second in 1974. For the second phase of the construction linking between Saemal and Gangneung, Hyundai E&C used mixture of aggregates and natural sand to adopt the anti-frost layer laid under the sub-base layer,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The Honam-Namhae Expressway project stretched 437.6 kilometers through the Honam plains down to Busan. In its effort to successfully execute the project, Hyundai E&C improved its technological capability by acquiring knowledge on pavement and soft ground processing.

Hyundai E&C set out to build bridges after the restoration project of the Hangang Bridge in the wake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Later in the 1970s, the builder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Mapo Bridge and the Jamsil Bridge crossing the Han River.

Hyundai E&C also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Namsan 1st Tunnel in August 1970. Garnering recognition for its technological capability, the builder was awarded a deal to build the Namsan 3rd Tunnel.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Namsan 3rd Tunnel in February 1978 enabled Hyundai E&C to gain a solid footing as a leading builder in the domestic tunnel construction.

Hyundai E&C showed excellent construction capabilities in the construction of subways and railroads as well as highways and other roads.

Out of 12 construction zones of Seoul Subway Line 1, Hyundai E&C was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of Zone 7 between Jongno 3-ga Station and Jongno 5-ga Station. Following the construction of Seoul Subway Line 1 completed in August 1974, the builder later participated in Subway Line 2 to 9 in the metropolitan area, Airport Railroad and Gyeongui Line as well as subway lines in the country's six largest cities.



영동고속도로 전경.



현대건설은 1970년대 한강에 마포대교와 잠실대교를 놓았다. 사진은 잠실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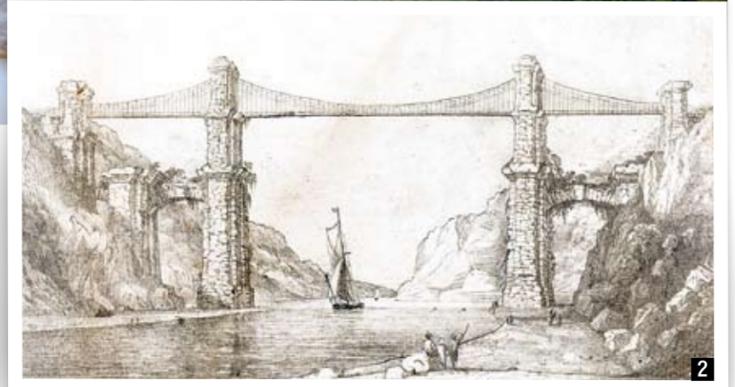


서울 중심지와 강남을 연결하는 남산 3호 터널.

19세기 영국의 엔지니어 이점바드 킹덤 브루넬(Isambard Kingdom Brunel, 1806~1859)은 터널·교량·철도·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천재 공학자다. 그는 대영제국의 25개 철도선을 구축하고 100개가 넘는 교량을 디자인했다.



1 브루넬이 설계한 '클리프턴 현수교'. 1836~1843년 사이에 탑들이 지어졌으나, 교량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그의 사후 1864년 완공됐다. 2 클리프턴 현수교 최초의 설계 스케치 모습. ©Brunel 200



## 대영제국의 천재 공학자 이점바드 킹덤 브루넬

(1806-1859)

### 토목공학자, 브루넬

이점바드 킹덤 브루넬(Isambard Kingdom Brunel, 이하 브루넬)은 영국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엔지니어다. 브루넬은 우리에게 다소 낯선 이름일지 몰라도 영국인들은 그를 산업혁명을 이끈 위대한 엔지니어로 기억한다. 영국의 대표적 상징물인 템스 터널,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 그레이트 브리튼호 등이 모두 브루넬의 작품이다.

영국에는 그의 이름을 딴 대학이 있고, 철도 건설 150주년을 맞이해 그의 얼굴이 들어간 기념우표가 발매되기도 했다. 2002년 BBC방송이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영국인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대문호 셰익스피어, 다이애나 왕세자비, 비틀스 멤버 존 레논 등을 제치고 윈스턴 처칠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브루넬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기 영국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인 마크 이점바드 브루넬도 엔지니어였다. 20세의 브루넬은 마크가 템스강의 하저(河底) 터널 공사를 할 때 레지던트 엔지니어로 일할 만큼 실력을 갖췄다. 강 밑으로 굴을 뚫는 템스 터널은 당시

로선 과감한 아이디어였다. 이 터널에는 지금까지도 터널 시공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드 터비엠(Shield TBM)' 공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는데, 청년 브루넬은 이곳에서 몸으로 부딪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템스 터널 공사는 녹록지 않았다. 두 차례의 홍수로 장기간 작업이 중단 되었고, 여러 명의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브루넬 역시 1828년 갑작스러운 홍수로 중상을 입었다.

그 기간 동안 브루넬은 휴식차 브리스틀로 갔다. 그는 회복기에 클리프턴과 레이우즈를 연결하는 '클리프턴 현수교'의 설계 공모에 당선됐다. 그가 설계한 다리는 강 위 75m에 있는 전체 길

이 414m, 경간 214m의 현수교였다. 브루넬의 설계는 현재 기술로 분석해도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비록 이 다리는 교량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중단됐지만, 그의 설계 그대로 공학자 존 호크쇼와 윌리엄 발로가 1864년에 완성했다. '클리프턴 현수교'는 지금도 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 후 브루넬은 벽돌·석재·목재·주철 등을 재료로 수백 개의 다리를 설계했다. 그중에서도 테번과 콘월 사이의 '로열 앨버트교'가 가장 유명하다. 1854년 착공해 1859년에 준공한 이 다리는 '폐쇄형 현수교(closed



## 산업혁명 시대의 타고난 천재 공학자 토목, 철도,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영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뽑혀

suspension bridge'라는 새로운 형태를 선보였다. 브루넬의 사망 후 완공된 '로열 앨버트교'는 사진·가이드북·우표·동전 등에도 등장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남았다.

### 철도 설계자, 브루넬

1833년, 브루넬은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브리스틀의 상인과 은행가들은 리버풀과의 대서양 노예무역 경쟁에서 뒤쳐질까 우려하던 중이었다. 특히 리버풀-맨체스터 철도는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브리스틀 상인들은 철도회사를 세우고, 브루넬에게 철도가 놓일 경로를 조사하는 일을 맡겼다. 브루넬은 하루 20시간씩 말을 타고 다니며 이상적인 경로를 찾아냈다. 그는 27세 나이에 런던~브리스틀 간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 건설의 책임자가 됐다. 3200km에 달하는 철도가 브루넬의 감독 아래 건설됐다.

그는 간선철도의 모든 지점이 가능하면 수평과 직선으로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43.5cm인 철로의 표준 치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주식회사 측에 철로를 광폭(210cm)으로 건설할 것을 설득했다. 그가 도입한 광궤철도는 '궤간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그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광궤 선로는 철도 발달을 크게 촉진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광궤 선로에서는 더 크고 무거운 기관차들을 운행할 수 있고 차량 무게중심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브루넬은 철도가 실용적이면서도 미학적이기를 바랐다. 그는 버스 역에 엘리자베스풍의 전원주택 설계를 도입하고, '복스 터널'에는 고전적 아치 통로를 거대한 규모로 구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명세와 달리 시련도 있었다. 당시로서는 최장 길이(2.95km)였던 '복스 터널'은 공사하는 4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공사를 하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사고로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 선박 디자이너, 브루넬

브루넬은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발명가였다. 그는 육상 교통의 한계를 선박으로 넘어서고자 했다. 당시 상식으로는 증기선은 단거리 항해만 가능했다. 연료가 되는 석탄을 많이 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브루넬은 배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커진다면 대서양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의 손끝에서 세계 최초의 대서양 정기 횡단 목재 외륜(外輪) 증기선 '그레이트 웨스턴호'가 건조됐다. 1938년, 이 선박은 영국의 브리스틀에서 출항해 뉴욕에 15일 만에 도착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그 후 1845년에 설계한 '그레이트 브리튼호'의 선체는 철제로 제작됐다. 세계 최초의 철제 증기선인 '그레이트 브리튼호'는 처녀항해에서 7일 만에 대서양을 건넜다. 브루넬은 또 한 번의 운송 혁명을 일으켰다. 브루넬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배는 '그레이트 이스턴호'다. 이 배는 당시 최대 선박보다 네 배나 커 연료 보급 없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배는 실패했다. 대형 선박이라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됐으나 예상은 빗나갔고, 속력도 빠르지 않았다. 또한 대형이라 입항하기 어려웠다. '그레이트 이스턴호'에 물질적·정신적으로 열정을 쏟았던 브루넬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신부전으로 53세에 사망했다.

영국인들은 브루넬의 사후 '브루넬상(Brunel prize)'을 제정해 그의 도전 정신을 기리고 있다.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 살았던 브루넬의 상상력은 다리·터널·육교·철도·선박 기술을 한 단계 진보시켰을 뿐 아니라 문화 교류에도 큰 공헌을 했다. 하지만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면면이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실패와 직면해 있었다. 천재적인 엔지니어의 성공 뒤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있었다. 그것이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1 세계 최초의 철제 증기선인 '그레이트 브리튼호'. © Brunel 200 2 철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브루넬. 이미지는 스윈던 지역의 철도 차고의 모습. © Brunel 200 3 당시 최장 길이였던 복스 터널. ©Brunel 200 4 현재 50관각량 남아 있는 브루넬의 스케치북. 그의 상상력의 원천을 엿볼 수 있다. ©Brunel 200



신입사원이 진정한 현대건설인으로 거듭나는 한여름의 축제, '2017 현대건설 신입사원 수련대회'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이전보다 더욱 다이내믹하고 유쾌해진 3일간의 일정을 통해 신입사원들은 동기애를 다지고 패기와 열정을 충전했다. 글=김보나 / 사진=이슬기



1

제주도의 여름밤, 열정으로 수놓다

악~바편 수련대회, 에너지가 넘치다

지난 6월 21일 오전 7시, 김포국제공항이 현대건설 신입사원들의 설렘과 기대로 들쭉거렸다. 1월 입사 이후 6개월간 본사와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던 신입사원 65명이 수련대회를 위해 한데 모인 것. 한 시간 남짓의 비행 후 제주에 도착하자, 참가자들의 열정만큼 뜨거운 6월의 햇빛이 그들을 맞았다. 현대건설의 오랜 전통인 신입사원 수련대회는 매년 조금씩 진화해 왔다. 그러나 2017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프로

그램의 변화가 컸다. 이번 대회를 담당할 인사실 이은성 과장은 "기존의 신입사원 수련대회가 웅장하게 치러졌다면, 이번 대회는 캐주얼하고 감성적인 프로그램으로 동기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CEO와도 소통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변화의 시작을 알린 첫 일정은 '제주 어드벤처' 제주 동북부의 주요 관광 포인트를 탐방 방문하고, 미션을 완수한 선착순 세 팀은 BBQ 특별요리를 획득하는 전략 프로그램이다. 여섯 팀으로 나뉜 참가자들은 동문시장-메이저랜드-만장굴

등 총 7개의 포스트로 각각 흡여져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미션에 도전했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포스트는 투명 카약을 타고 자석낚시로 '현대건설' 글씨를 낚는 '열정리 카약' 포스트였다. 제주 어드벤처를 마치고 김녕해수욕장에 모인 신입사원들은 현대건설의 전통인 씨름대회를 했다. 8명의 선수가 조반부터 치열한 기 싸움을 펼쳤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3차전 끝에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김범준 사원. 팀원들은 김범준 사원을 헝가리 치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감성충만! 동기들과의 제주 숲 야외캠핑과 자전거 하이킹 수련대회 첫째 날 저녁 일정은 수련대회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캠핑이었다. 캠핑장에서 입소식을 한 신입사원들은 짐을 풀 뒤 저녁 식사를 위해 '요리 경연 대회'를 치렀다. 신입사원들은 "BBQ에 어울리는 국물 요리"라는 주제에 맞게 1조 사골부대찌개 2조 나가사키 사부샤부 3조 시원한 조개탕 4조 밀피유 나베 5조 해물누룽지탕 6조 해물미역국 등을 18분 안에 완성했다. 재벌석 인사실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장은 직접 맛을 보며 심사한 끝에 3조와 5조에 우승을 안겼다. 제주 흑돼지 바비큐와 제주 어드벤처에서 획득한 전복-뽕소라-소고기 등의 특산품으로 푸짐한 저녁을 먹은 참가자들은 오후 8시30분이 되자 캠프파이어 주변에 둘러앉았다. 그리고 '10년 후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 저마다 의견을 나눴다. "1조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겠다"는 당찬 포부와 "달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 등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첫날 아늑한 글램핑 텐트에서 숙박한 참가자들은 이른날 아침, 성산항으로 향했다. 성산항부터 세화해수욕장까지 약 13.5km의 해안 도로를 자전거로 달리기 위해서다. 신입사원들은 준비운동 및 안전 장비 착용 후 전문 교관의 인솔 아래 세 팀으로 나누어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수신호로 서로를 이끌고 자전거 운행에 서툰 동기를 서로 도우며 한 시간 반가량 해맞이 해안로를 달린 참가자들은 종착지인 세화해수욕장에 도착해 CSR 활동을 벌였다. 제주도 바다보존협회 및 지역 어촌계 주민들과 협의해 세화해수욕장 내 쓰레기를 수거



7

8

9



전여예상하지 못한 씨름대회 우승을 차지해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상금으로 동기들과 즐겁게 회식 하겠습니다~ 씨름대회 우승자 힐스테이트 호매실 현장 김범준 사원



2

3

4

5

6

라면만 끓일 줄 알던 저희들이 해물누룽지탕을 완성하고 1위까지 아다나! 이 모든 것이 협동의 결과입니다. 조원들 사랑한다, 파이팅!

요리 경연 대회 우승팀 Absolute (A)



Outdoor camping and bicycle hiking

On the first night of the program, the participants went camping, which was the first time for newcomers of Hyundai

실제 무대에 올라 현대건설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공연하니, 준비할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현대건설의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비전 뮤지컬팀 최종 우승팀 WANNA B

하고 수거한 쓰레기 무게만큼의 서산비를 지역 어르신에게 전달했다. 현대건설 신입사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둘째 날 오후 프로그램이 수련대회의 하이라이트, '현대인의 밤'에는 정수현 사장과 임원 외에도 '멘토단' 자격을 받은 오후 8시30분이 되자 캠프파이어 주변에 둘러앉았다. 그리고 '10년 후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 저마다 의견을 나눴다. "1조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겠다"는 당찬 포부와 "달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 등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를 연발하고 재미있는 오답을 선보인 참가자들 덕분에 행사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다. 비전 뮤지컬의 1위는 합창을 선보인 'WANNA B' 팀이 거머쥐었다. 마지막으로 정수현 사장과 신입사원들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모두 함께 '아파트'를 열창하며 현대인의 밤의 대미를 장식했다.

CEO와 신입사원, 상방향 소통을 이룬다 수련대회 마지막 날 오전에 실시한 'CEO 팩트체크' 역시 정수현 사장과 신입사원들의 진솔한 소통을 위해 처음 마련된 프로그램이었다. '포스트잇 토크'에서는 신입사원들의 질문을 포스트잇에 써 붙이고, 정수현 사장이 직접 질문을 골라 즉석에서 답변했다. 정수현 사장은 '생애 최고의 순간'을 묻는 질문에 "현대건설 사장이 임명된 2011년 6월 3일"이라고 밝혔다. 취미생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게 살기 위해 리듬기타를 치고 드럼과 색소폰도 다룬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본격적인 토크에서는 참가자들이 '우리 회사의 장점' '신입사원의 고민거리' '신입사원이 바라는 직장 상사의 모습' 등 직장생활과 관련된 일곱 가지 주제에 대해 무선투표기로 솔직한 의견을 내었다. 이어진 '리버스 토크'에서는 반

대로 정수현 사장이 신입사원들에게 즉석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들었다. 정수현 사장은 마지막 인사에서 신입사원들이 건설의 패러다임을 바꿔 가는 주축이 되어줄 것과 혼자가기 아닌 회사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박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퇴소식과 함께 수련대회 우승팀을 발표하는 시간. 요리 경연 대회와 비전 뮤지컬에서 1위를 차지한 'WANNA B'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공식 일정을 마무리

한 참가자들은 오후에 (休)樂(락), 흥(幸) 콘셉트로 나누어 워터파크, 스마와 보트, 요트 등을 즐기며 제주의 여름을 만끽했다. 하나로 토틀 토틀 열정을 채우고 비전을 새긴 65명의 신입사원들. 이번 수련대회는 신입사원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앞으로의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요리 경연 대회와 비전 뮤지컬에서 1위를 차지한 'WANNA B'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공식 일정을 마무리



1, 7 자전거 하이킹을 마치고 세화해수욕장에서 바다 정화 활동을 펼친 신입사원들. 2 이번엔 첫선을 보인 'CEO 팩트체크'는 정수현 사장과 신입사원들이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 3 비전 뮤지컬에서 멋진 댄스 공연을 선보인 Pe-bar 팀. 4 마지막 날 오후, 참가자들은 제주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5 참가자들이 카약을 타고 제주 어드벤처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6 신입사원들은 자전거로 해안 도로를 달리며 동기들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을 맛봤다. 8 각 조의 모든 조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요리 경연 대회에 참여했다. 9 재벌석 인사실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신입사원 대표가 캠프파이어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인이 기운이 없고 몸이 허하다고 느낄 때 보양식을 찾는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이유로 '헬시푸드'를 먹는다. '폭염 경보'가 울릴 정도로 뜨거운 날씨 탓에 영양 보충이 필요한 요즘, 건강에 좋고 맛도 있는 세계 각지의 대표적인 보양식을 소개한다. 글·사진=이재건푸드칼럼니스트

# '글로벌 보양식'으로 무더위 이겨내세요!

## 태국 퐁얌꿍<sup>1</sup>

세계 3대 미식의 나라라 꼽히는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물 요리인 퐁얌꿍은 프랑스의 부야베스, 중국의 샹스핀과 함께 세계 3대 수프라 불리는 보양식이다. 퐁얌꿍의 어원은 '살다'라는 뜻의 '퐁'과 맵고 신 샐러드라는 뜻의 '얌'에서 왔다. 탱글탱글한 새우와 레몬그라스, 라임 잎과 태국 고추, 고수 등 다양한 향신재료를 넣어 끓이는 국물 요리로 한술 뜨면 신맛·매운맛·단맛·짠맛 등이 함께 느껴진다. 답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태국에서 퐁얌꿍은 우리나라의 김치찌개 만큼 대중적이며, 감기에 걸렸을 때나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다. 퐁얌꿍 재료인 레몬그라스는 배 속의 가스를 배출하게 해주고 이뇨 작용을 돕는다. 라임과 고추는 기침과 감기를 낫게 하는데 효능이 있다고 한다.

**재료** 물 3컵, 새우 10마리, 버섯 반 줌, 방울토마토 5개, 양파 1/4개, 고수 반 줌, 라임즙 1큰술 **육수 재료** 태국 고추 10개, 카피르 라임 잎 10장, 레몬그라스 약간, 갈랑갈 약간 **소스** 태국 칠리 페이스트(남프릭파오) 1큰술, 콘텐스 밀크 4큰술, 피시 소스 1큰술, 코코넛설탕(혹은 설탕) 1작은술  
**만드는 방법** 1 냄비에 물과 육수 재료를 넣어 한소끔 끓인 후 건져내고 소스 재료를 넣는다. 2 팬에 새우 머리와 껍질을 볶고, 육수가 우러나면 ①을 넣은 후 끓인다. 3 나머지 채소와 새우를 넣고 다시 끓인다. 4 한소끔 끓으면 마지막으로 라임즙을 넣는다.

## 일본 우나동<sup>2</sup>

우리나라에 '복날'이 있다면, 일본에는 '도요노우시노히(土用の丑の日)'가 있다. 이날은 '우(丑)'자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 날인데,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바로 '우나기(장어)'다. 속설에 의하면 이 풍습은 19세기 에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도만(도쿄만)을 간척하면서 장어가 많이 잡히기 시작하자, 그 일대에 장어 가게가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여름철이면 더운 날씨 탓에 장어가 잘 팔리지 않았고, 어느 장어가게 주인이 '우시날'에는 '우'자가 들어간 음식을 먹어 더위를 쫓아야 한다는 옛 말을 걸면서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블랙푸드'가 정력에 좋다는 말이 있어 여름에 특히 장어의 인기가 높다. 장어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A·B·E,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해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재료** 장어 1마리(청주 2큰술), 식용유 2큰술 **양념** 간장 8큰술, 청주 2큰술, 맛술 2큰술, 물 혹은 장어 뼈 삶은 물 5큰술, 물엿 2큰술, 설탕 2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생강즙 1/2큰술, 후추 약간 **기타** 밥 1공기, 생강 1쪽  
**만드는 방법** 1 손질한 장어에 청주를 뿌려 두었다가 식용유를 두른 팬에서 초벌한다. 2 팬에 양념 재료를 넣고 살짝 졸인다. 3 초벌로 구운 장어에 ②를 발라 가면서 굽는다. 4 밥 위에 ③을 올리고 생강을 채 썰어 곁들인다.

## 한국 삼계탕<sup>3</sup>

복날 보양식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삼계탕'은 약 병아리에 인삼·황기·대추·참쌀 등을 넣고 푹 고아 만든 요리다. 삼계탕의 원래 이름은 '계삼탕'이다. 인삼은 양반이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재료였던 터라 서민들은 계삼탕이라 불렀다. 삼계탕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인삼이 대중화된 이후였다. 삼계탕의 유래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시대부터 닭과 인삼을 보양식으로 사용한 원기 회복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조선요리제법』이라는 요리서에도 닭국이라는 요리가



등장한다. 『동의보감』은 닭고기는 독이 약간 있으나 허약한 것을 보하는 데 좋기 때문에 식이요법에 많이 쓴다고 전한다.

**재료** 닭 1마리, 전복 1개, 인삼 2뿌리, 간 밥 3통, 대추 2알, 마늘 5알, 참쌀 1/2컵, 양파 1/2개, 대파 1/2뿌리, 물 10컵  
**만드는 방법** 1 닭을 깨끗하게 씻은 후 불린 참쌀, 대추, 밥, 마늘, 인삼 등을 닭의 배속에 넣는다. 2 찬물에 ①을 넣은 후 센 불로 끓인다. 3 물이 끓으면 불을 낮추고, 한 시간 이상 푹 끓인다. 4 닭이 부드러워지면 건져내 먹고, 참쌀 등 속은 육수에 넣어 죽으로 끓여 먹는다.

## 스페인 가스파초<sup>4</sup>

태양의 나라 스페인의 여름 보양식 '가스파초'는 스페인에서도 덥고 건조하기로 유명한 안달루시아 지방의 전통음식이다. '쉬다' '혼합하다'는 뜻을 가진 가스파초는 토마토·오이·양파·빵·올리브유·식초를 넣어 갈아 만드는 것이 정석이나 집마다, 취향에 따라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추가하거나 빼기도 한다. 이 음식에는 각종 비타민, 무기질, 다량의 철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수프 형태이기 때문에 소화도 잘된다.

**재료** 토마토 1개, 냉동 딸기 10개, 오이 1/2개, 마늘 1쪽, 양파 1/8개, 식빵 1/2장 **소스** 올리브유 2큰술, 화이트 와인 1/4컵, 레몬즙 1큰술, 소금 1/2작은술 **기타** 얼음물 1/4컵  
**만드는 방법** 1 토마토·딸기·오이·마늘·양파를 썰어 플라스틱 통에 넣고 식빵을 대강 뜯어 넣어 준다. 2 소스를 부어 냉장실에서 1시간 이상 재운다. 3 약간의 얼음물과 함께 ①, ②를 곱게 갈아 낸다.

## 페루 세비체<sup>5</sup>

(꽃보다 청춘-페루 편)에서 윤상·유희열·이적 등 멤버들이 페루에 도착해 가장 먼저 먹은 음식인 '세비체'. 페루의 대표 보양식이자, 매년 6월 28~29일을 '세비체의 날'로 정할 만큼 페루인들에게 남다른 사랑을 받는 음식이다. 세비체의 유래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페루 사람들은 본래 생선과 해산물에 겨자와 식초를 뿌려 먹었다. 16세기 스페인이 페루를 침략하면서 레몬·마늘·양파 등이 들어왔고 세비체는 오늘 날의 모습이 됐다. 우리나라의 '생선회 무침'과 비슷한 세비체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흰 살 생선(횡감용)과 익힌 해산물을 레몬즙(혹은 라임즙), 고수, 고추, 다진 양파, 소금으로 버무려 일정 시간 숙성시키면 끝. 산도 높은 재료들이 생선살(단백질)을 변성시켜 식감을 꼬들꼬들하게 한다.

**재료** 흰 살 생선(광어·우럭 등 횡감용) 100g, 양상추 한 줌, 토마토 1/4 등 **소스** 올리브유 3큰술, 레몬즙 3큰술, 설탕 1작은술, 고수 반 줌, 다진 양파 1큰술, 마늘즙 1작은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만드는 방법** 1 소스를 고루 섞는다. 취향에 따라 매운 고추를 썰어 넣어도 좋다. 2 ①에 횡감용 흰 살 생선을 넣어 조물조물 무친다. 3 차가운 냉장실에서 잠시 둔다. 4 양상추 등 샐러드용 각종 채소와 함께 낸다.

## 한국 추어탕<sup>6</sup>

삼계탕과 함께 여름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추어탕. 벼농사가 끝난 논에 물을 댄 후 잡히는 미꾸라지로 탕을 끓여 먹었던 것이 그 유래라 할 수 있다. 추어탕은 더위에 지친 농부들에게 단백질·비타민A·무기질·아미노산을 제공하는 보양식이었다. 남아 있는 기록으로는 고려 말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경이 고려를 다녀온 후 쓴 『고려도경』에 처음 등장했으며, 『동의보감』 『본초강목』에도 미꾸라지의 효능이 서술돼 있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추어탕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데, 이는 하천에 사는 미꾸라지를 하천은 물고기로 여겨 양반들이 서민 음식이었던 추어탕을 먹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꾸라지는 배를 따뜻하게 하고 원기를 돋우며 술을 빨리 깨게 하는 등 기력을 보하는 음식으로 전해진다.

**재료** 미꾸라지 1대접(소금 2큰술), 삶은 우거지·시래기 반 줌, 대파 1뿌리, 고추 3개, 물 6컵(마늘 5쪽, 생강 1쪽, 소금 1큰술) **양념** 고춧가루 2큰술, 된장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마늘 1큰술 **기타** 들깨가루 1큰술, 산초가루 1/2작은술  
**만드는 방법** 1 미꾸라지를 뚜껑이 있는 그릇에 넣고 소금을 뿌려 해감한 후 소금물에 박박 행군다. 2 찬물에 마늘·생강·소금·미꾸라지를 넣어 푹 삶는다. 3 미꾸라지를 건져 체에 내리거나 믹서에 간다. 4 미꾸라지를 삶은 물에 삶은 시래기·우거지, 대파, 고추와 함께 ②을 넣어 끓인다. 5 나머지 양념을 넣고 한소끔 끓인 후 들깨와 산초가루를 넣어 먹는다.

# 21세기 후시(後市)의 공간이란

##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청와대의 역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하는 도시의 변화 중 흥미로운 게 하나 있다. 다른 아닌 청와대 이전 후 복촌 일대에 관한 것이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청와대 자리가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부터다. 고려시대에는 남경(고려시대 한양의 명칭)의 이궁(離宮)이 있던 자리였던 것이, 조선시대 한양이 새로운 도읍으로 정해지고 경복궁이 건장되면서 본격적인 의미를 갖게 됐다.

알려진 것처럼 조선시대 궁궐의 배치는 중국의 것을 따랐다. 당시 도시 마스터플랜 프로젝트가 흔한 일이 아니었을 테니 참고할 만한 것이 중국의 것 말고는 없었을 게다. 『주례 고공기』에 의하면 궁궐의 배치는 좌묘우사(左廟右社)라고 하여 동쪽에는 종묘를, 서쪽에는 사직단을 두었다. 그리고 전조후시(前朝後市)라고 하여 궁궐의 앞으로 관청을, 뒤쪽으로는 시장을 배치한다. 이런 배치는 도시가 평지인 경우 그 한가운데에 상징적인 궁궐의 자리를 잡는다는 개념인데, 한양의 경복궁 자리는 뒤로 백악을 두고 산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북악 밑으로 시장을 놓을 자리가 애매했다. 사실 중국의 경우도 좌묘우사, 전조후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예는 많지

않다. 땅이라는 것이 변화무쌍해 이론대로 적용할 만큼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양에서 시장은 지금의 종로 자리에 두게 된다.

조선시대 초기 경복궁 뒤편은 대단한 역할이 없었다. 군신이 모여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회맹단이 들어섰다가 후원이나 궁궐을 지키던 어영군의 훈련지, 과거 시험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고종 때는 용문당·경무대·경농재 등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궁 행정의 부속 공간으로 쓰임새를 얻기도 했다.

일제시대인 1937년에는 조선 7대 총독 미나미 지로가 몇 채의 건물을 헐고 용산에 있던 총독 관저를 이전해 이 자리에 지었다. 현 서울시청에는 경성부 청사를, 광화문 뒤에는 조선총독부를, 그리고 경복궁 뒤로 총독 관저를 세워 시민 통치를 위한 도시의 중심 권력축을 형성한 것이다. 광복 이후 1945년 미군과 함께 서울에 진주한 존 하지 중장이 총독 관저를 그대로 이용해 2년간 살았고, 뒤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하며 경무대로도 불렀다. 이후 윤보선 대통령이 입주한 뒤 청와대로 개칭, 그 후 청와대 건물이 신축되고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때 경무대는 철거된다. 광복 후에도 거의 50년 넘게 일제시대 총독 관저를 이용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청와대 자리가 조선 왕조의 도시 권력축의 종점인 경복궁 뒤편에 있어 마치 왕조의 권력을 이어간다



## 궁궐 앞에 관청을, 후면에 시장을 두는 전조후시(前朝後市) 따르고자 한 청와대 진정한 시민들의 공간으로 탄생 기대

는 상징적인 의미를 버리기 아쉬워서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

### 시민과 호흡하는 공공 공간

만일 청와대가 이전한다면 현재 자리는 공원과 기념관 등의 공공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크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관들의 업무 공간이 차를 타고 다녀야 할 만큼 서로 떨어져 있어 일하기 애매하다고 비판받던 날찍한 공간은 공원으로 변하면 안성맞춤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관이나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선다면 강력한 축을 중심으로 대통

령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이 어우러진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몰 같은 개념의 공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땅의 크기에 맞춰 북악 산자락 아래 다양한 시설이 유기적이지 모인 한국식 내셔널 몰이 될 것이다. 서촌과 북촌에 들어설 건물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라는 특수시설로 인해 제한받던 건물의 배치·높이·층수 등이 좀 더 자유로워져 건물에 대한 규제도 많이 줄어들 테니 말이다. 게다가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지만 주차장·화장실 같은 도시 인프라를 넣을 만한 적당한 땅이 없어 고민

이 심각한 북촌도, 청와대 이전 부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한결 여유로워질 것이다.

이러저런 시설과 건물의 변화도 있지만, 도시적인 의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서촌과 북촌으로 나뉘었던 좌우 지역이 연결된다는 것이리라. 광화문광장에서 시작한 여행이 북촌을 지나 청와대 공원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서촌의 명소를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원형 루트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이는 각 지역을 활성화시켜 우리는 서울 도시 중심부의 모습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멋진 산책길 하나를 갖게 될 것이고, 조선왕조의 시작 이후 600년 만에 궁궐에 물건을 공급하기 위한 시장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의미의 후시의 공간이 탄생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 차현호

건축가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그림=웹툰작가 손하기

신비한 현대사건  
『2화. 끝나지 않는 다리』

우연히 현대건설 역사책 속으로

책 속의 수호신이 주는 미션을 통과하고 탈출하기 위해

드디어 도착했어요!

다음 미션 장소인 쿠웨이트로 향한다.

이봐! 이번엔 김 대리님까지?

어쩌다 보니...

그럼 오늘의 미션을 드릴게요!

지금 서 계신 다리의 반대편 끝까지

가장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거예요!

1등으로 골인한 명만 원래 세계로 보내 드리죠!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자유예요!

총 길이가 무려 48km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제일 긴 해상교량!!

이걸 달려서 건넌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 그래서 난 빠르게 보트로 도착했지!

치사하다~~!!

그럼 회사에서 보자고~!

자 그럼 우리 다음 장소로

같이 가요~~!!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여행탐구생활

여름이다. 곧 휴가 시즌이 시작된다. 남들 다가는 뻔한 휴가지 말고 좀 더 특별한 곳은 없을까. 올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꼭 한 번 가 봐야 할 여름 여행지를 소개한다. 글·사진=최갑수(여행작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

# 여름휴가, 어디까지 가봤니?

## <육식당의 그곳, 인도네시아 롬복&길리>

인도네시아 하면 떠오르는 여행지는 단연 발리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연 30만 명 안팎의 한국인 관광객 가운데 절반이 발리를 찾는다. 한국 여행자들에게 인도네시아는 곧 발리인 셈이다. 하지만 눈 밝은 여행자들은 북쪽에는 발리를 피해 옆 동네를 찾는다. 발리에서 비행기로 30분, 페리로 2시간 떨어진 순다 열도에 자리한 롬복이다. 롬복은 발리와 지척이지만 여러모로 다르다. 오래전 상업화된 발리와는 달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때 묻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롬복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곳이 사사 빌리지다. 사사족은 롬복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주민으로 발리인들보다는 자바인들과 흡사한 외모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 사사 빌리지에서는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현장을 관람하고 전통 의상과 도자기, 악기 등을 손수 제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체험할 수 있다. 게

라바(gerabah)라고 불리는 전통 절그릇을 만드는 토기 마을 바뉴물레. 전통 배틀을 이용해 전을 짜는 수카라레 마을도 돌아볼 만하다.

롬복 남쪽에 자리한 탄중 안(Tanjung Aan)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히는 곳이다. 해변 서쪽에 있는 낮은 언덕에 올라서면 절벽으로 둘러싸인 원형의 만이 내려다보이는데, 이곳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롬복 북서쪽에는 작은 섬 세 개가 나란히 떠 있다. 흔히 길리섬이라고 부르는 길리 트라왕안(Gili Trawangan), 길리 메노(Meno), 길리 에어리(Air)가 주인공이다. 세 섬 가운데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길리 트라왕안. 롬복 본섬 북서부에 있는 방살(Bangsai) 항구에서 배를 타고 30~40분만 가면 도착한다. 이곳에서 최근 화제가 된 <육식당>을 촬영했다.

길리는 세계 3대 다이빙 포인트로 꼽히는 곳이다. 바닷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각양각색의 열대어와 산호초를 만

난다. 1m에 달하는 거북과 죽은 듯 걸려 있는 바다뱀도 볼 수 있다. 생수병에 물고기 밥을 넣어가면 수십 마리의 열대어가 뭍 주변을 감싸는 경연도 할 수 있다. 굳이 스쿠버다이빙이 아니라도 스노클링만으로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신비한 산호초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길리의 바다다. 바닷가 한 켠에 자리한 스노클링 장비 대여점에서 고글과 오리발만 빌려 50m만 헤엄쳐 나가면 화려한 수중 세계를 만끽할 수 있다. 굳이 배를 타고 나가는 스노클링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

부탄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행복'이다. 국민의 97%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고 있다. 행복지수 세계 1위다. 문재인 대통령도 히말라야 여행에서 부탄을 방문한 뒤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부탄 헌법을 인용하기도 했다.

부탄을 찾은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수도 팀푸(Thimphu)다. 수



도로와 해변이 인구 12만 명 정도다. 팀부의 첫인상은 라오스·미얀마·베트남의 어느 아시아 국가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거리는 부탄 전통 복장인 '고'와 '키라'를 입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고는 남자들이 입는 전통 옷인데 '원피스'를 떠올리면 된다. '키라'는 여자들이 입는 옷으로 우리네 한복과 약간 비슷하다.

부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들 가난한 나라라고 부른다. 하지만 직접 부

업에서 얻는 수익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실시한다.

부탄은 불교국가다. 국민의 100%가 불교신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부탄의 불교는 8세기에 인도 북부에서 태어난 파드마삼바바가 전했다. 거리 곳곳에는 불경을 적은 깃발인 툽다가 펄럭인다. 바람이 불어 천이 펄럭일 때마다 불경을 읽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원통형으로 생긴 마니차도 곳곳에 있다. 한 번 돌릴 때마다 불경을 한 번 읽는 것과 같다고 한다. 툽다 아래를 지나고, 마니차를 돌리는 부탄 사람들의 눈빛은 깊고 아늑하다.

부탄 여행은 주로 중(Dzong)과 사원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이뤄진다. '중'이란 행정과 종교를 관할하는 성을 일컫는 것으로 부탄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 처음에는 티베트 침공에 대비해 세웠지만 지금은 행정부와 사법부, 지역 관할 사찰이 함께 들어선 부탄만의 독특한 복합 청사 역할을 한다. 요새·사원·성 등 다양하게 변역된다. 도시 이름에 따라 로중·푸나카중 등으로 부른다. 20개 도시가 있는 부탄에는 과거 중으로 사용됐던 것을 합쳐 수십 개의 중이 있다.

여러 중 가운데 꼭 가 봐야 할 곳은 푸나카에 자리한 푸나카중이다. 1637년에 부탄의 국조 삼둥 스님이 창건했다. '대행복의 궁전'이라는 뜻으로 부탄 전역의 수십 개 중 중 가장 아름다운 곳

로 꼽힌다. 현재도 삼둥 스님의 등신분이 내부에 모셔져 있어 부탄인들이 신성시 여긴다.

탁상사원은 부탄을 찾는 모든 여행자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다. 불교를 전파하려 부탄에 온 파드마삼바바가 이곳에서 수행하며 명상에 잠겼다고 한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 자리 잡고 있는 탁상사원은 부탄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선현들의 탄생울 불러일으킨 명승, 봉화 청량산**

요즘 세상에 한국에 오지가 어디 있었냐고 하지만 아직 봉화는 오지다. 소백산과 태백의 여러 준봉으로 둘러싸인 탓에 외지인들의 출입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산과 들과 강은 여전히 굵고 순박하다. 열목어가 살아 있고 반딧불이의 군무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봉화다.

봉화에서도 깊은 곳에 청량산이 있다. 해발 870m밖에 되지 않지만 그 깊이는 8000m급을 능가한다. 높고 크지는 않아도 연이어 솟은 바위 봉우리와 기암절벽이 어울려 산세가 수려하다.

청량산 도립공원 대표소를 지나 5분을 올라가면 주자정. 여기부터 청량산으로 접어들다. 비탈진 언덕을 따라 오르면 밖에서 보던 모습과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길을 함참 오르다 숨이 턱까지 찢 무렵 나타나는 절이 청량사다.

원효대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선라의 명필 김생이 금공부를 했다는 김생굴, 흥건적의 난을 피해 머물던 공민왕의 유적, 퇴계 선생이 글을 배웠던 오산당 등도 절 주위에 남아 있다.

청량사의 중심전각은 유리보전이다.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기품과 위엄이 있다. 안에는 약사여래상이 모셔져 있다. 아픈 사람을 치유한다는 부처다. 국내에 하나뿐인 종이를 녹여 만든 지불(紙佛)이다. 금박을 입혀 겉모습만으로는 종이부처인지 눈치채지 못한다. 유리보전 현란한 고려 공민왕의 친필이다.

요즘 세상에 한국에 오지가 어디 있었냐고 하지만 아직 봉화는 오지다. 소백산과 태백의 여러 준봉으로 둘러싸인 탓에 외지인들의 출입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산과 들과 강은 여전히 굵고 순박하다. 열목어가 살아 있고 반딧불이의 군무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봉화다.

봉화에서도 깊은 곳에 청량산이 있다. 해발 870m밖에 되지 않지만 그 깊이는 8000m급을 능가한다. 높고 크지는 않아도 연이어 솟은 바위 봉우리와 기암절벽이 어울려 산세가 수려하다.

청량산 도립공원 대표소를 지나 5분을 올라가면 주자정. 여기부터 청량산으로 접어들다. 비탈진 언덕을 따라 오르면 밖에서 보던 모습과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길을 함참 오르다 숨이 턱까지 찢 무렵 나타나는 절이 청량사다.

**신나는 갯벌 체험에 시간가는 줄 몰라요, 고향 구시포**

전북 고창군 구시포는 해수욕과 갯벌 체험으로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구시포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해 한참 걸어가도 물이 어른 허리 높이 정도다. 해변에서는 배낚어도 즐길 수 있다. 한 시간쯤 캐번 배낚고 모시조개 한 바구니는 너끈하다.

해수욕장 뒤편으로 울창한 숲속이 펼쳐진다. 숲속에는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는 이도 많다. 여름철이면 자리 잡기가 힘들 정도라고 한다. 방파제 위

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망둑어 낚시를 즐기는 이도 많다. 방파제에서는 구시포의 풍경이 한눈에 보인다.

구시포에서 해안 도로를 따라 계속 북쪽으로 가면 장호어촌체험마을에 닿는다. 자동차로 20여 분 걸리는데, 고창을 찾은 가족 여행자라면 꼭 한 번 가볼 만하다. 장호에서 구시포해수욕장까지 갯벌이 4km나 이어져 '고창 명사십리'라고도 불린다. 고우면서 단단한 모래밭 덕분에 승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찾고, 간혹 자동차가 시원스레 질주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갯벌 체험이다. 마을에 자리한 체험안내센터에서 정화를 빌려 신고 호미와 바구니를 들고 갯벌로 향하는 트랙터가 오르면 아이들은 기대감에 부풀다. 트랙터가 체험장에 도착할 때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연신 엉덩이가 들쭉거리는 것마저 재미없는 체험거리다. 트랙터 밖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갯벌의 풍광을 감상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갯벌 체험을 한 뒤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창 고인돌 유적으로 가보자. 한반도는 고인돌이 많기로 유명하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우리나라에 3만여 기 이상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남과 전북을 포함한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특히 고창은 1663기의 고인돌이 있어 단일 구역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고창고인돌 박물관과 고인돌 주변 탐방 코스도 잘 정비돼 있어 편하게 돌아볼 수 있다.

고창읍성은 전남 순천의 낙안읍성, 충남 서산의 해미읍성과 더불어 국내 3대 읍성으로 꼽힌다. 둘레가 1684m에 달하는데 성곽 바깥 길을 걷거나 성곽 위로 한 바퀴 돌 수 있으며, 성곽 안 소나무 숲 길이나 맹종죽밭도 운치 있다.

고창 하면 선운사도 빼놓을 수 없다. 신라 진흥왕이 창건했다는 설도 있고 577년(백제 위덕왕 24)에 검단선사가 창건했다는 설도 있다. 절에 있는 찻집에서 맑은 녹차 한 잔을 나누다 보면 고창의 운치 있는 여름이 느껴진다.



1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히는 탄중 안. 2 롬복 본섬 북쪽에 있는 길리섬의 거리. 3 부탄을 찾는 여행자가 꼭 들르는 탁상사원. 4 부탄은 국민의 거의 100%가 불교신자다. 5-6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길 원한다면 고향 구시포가 답이다. 7 부탄 팀푸 시내의 모습. 부탄의 모든 건물은 전통 양식으로 지어야 한다. 75만 명의 국민은 고집스럽게 전통을 지키고 있다. 8-9-10 봉화는 아직 오지다. 외지인들의 출입이 쉽지 않았기에 자연 훼손이 적다.

# 남들 다가는 휴가지 말고 특별한 곳을 찾고 있다면, 주목! 울여름, '인생 휴가지'를 만나다

절 오른쪽으로 난 오솔길을 걸어가면 '어룡대'다. 청량산의 육육봉(12봉우리)을 한눈에 조감할 수 있다. 어룡대에 서면 '산은 연꽃이고, 절터는 꽃술'이라는 사실을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퇴계는 청량산 육육봉 경경을 이렇게 노래했다. "청량산 육육봉을 아는 이는 나와 흰 기러기(백구)뿐이며 어부(어주자)가 알까 하노라." 주자가 무이산을 애잔했듯 퇴계는 청량산을 이상향처럼 여겼던 모양이다. 당호도 '청량산인'이라 지을 정도였으니 청량산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

오산당은 퇴계가 만년에 『도산십이곡』을 저술한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15세 때 숙부인 송재 이후 선생으로부터 글을 배웠다. 당시는 초락이었지만 후학들이 퇴계의 뜻을 기려 기와를 올렸다. 오산당에서 숲 좋은 오솔길을 따르면 은진과 만난다. 663년에 세워진 곳으로 청량산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나다. 뒤로는 기대한 금탑봉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아래는 아득한 남대리다.

청량산 입구에 있는 찻집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은 차 한 잔 마시기 좋은 곳이다. 커다란 통유리를 통해 청량산 산세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찻집 한 칸에는 이런 시구도 적혀 있다.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 꽃이 필까 잎이 질까 / 아무도 모르는 세계의 저쪽 / 아득한 어느 먼 나라의 눈 속시이라도 들릴까 /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 저녁 연기 가늘게 피어오르는 / 청량산의 산사에 밤이 울까 / 창호문에 그림자 / 고평이 어른거릴까."

10

세계적 산업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Karim Rashid)의 디자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오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전시다.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6  
2017/06/29/Thursday



2017.6.30~10.7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02-580-1300 | www.sac.or.kr

1 Koop Chair, Martela, Finland, 2012 2 Garbo, Umbra, Canada, 1996 3 Hug Salt and Pepper, Nambe, USA, 1995 4 Lava Lounger, Vondom, Spain, 2010 5 Nafir Ceiling Lamp, Axo Light, Italy, 2014 6 Koochy, Zanotta, Italy, 2007 7 Kurve Chair, Nienkamper, Canada, 2000 8 Kinx Lamp, Fontana Arte, Italy, 2015 9 Digital Portraits for Cover of Karimusik Album, Karimusik, USA, 2014



세계 3대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展

# Karim Rashid

## Design Your Self



세계 3대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카림 라시드의 아시아 첫 대규모 전시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6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다. 미국·독일·이탈리아·크로아티아·브라질 등 세계 유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카림 라시드의 전시가 열린 적이 있지만, 아시아에서 대규모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카림 라시드展은 그의 디자인 철학에 따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시를 내세운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둘러싸인 카림 스타일의 전시장은 'Karimstory 카림의 이야기' 'Beautification of Life 삶의 미화' 'Hall of Globallove 글로벌러브 홀' 'Into the Scape 스케이프 속으로' 'Digipop 디지팝' 'Era of Mass Production 대량생산의 시대' 'Mission for the Humanity 인류를 위한 사명'의 7개 테마로 구성된다. 카림 라시드의 초기작, 세계 3대 디자이너로 만들어 준 대표작과 각종 수상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처음 공개되는 초기 디자인 스케치와 오직 한국 전시만을 위한 조형물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그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다.

카림 라시드가 직접 디자인한 전시장에는 뉴욕 스튜디오에서 소장하고 있는 디자인 스케치 원본과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조형물, 가구, 오브제, 미디어 작품까지 35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수려한 곡선을 뽐내는 유기적이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만나며 카림 라시드의 디자인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